

HDPE, 호남석유화학 불똥 어디까지...

중·단기 공급계획 이미 수립 ... 타포린 및 사출용 가격상승 불가피

호남석유화학이 HDPE(High-Density Polyethylene) 3라인 16만톤 플랜트 폭발사고로 인한 피해액과 피해상황의 보도에 대해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10월3일 HDPE 플랜트 폭발사고에 따른 보도에 대해 호남석유화학 관계자는 “일부 기사와 애널리스트 보고서에 나온 피해액수 및 피해상황이 예상에 의한 수치일 뿐이며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경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관계로 피해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 “구체적인 피해상황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수계획 및 일정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세워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제3 공정라인의 폭발에 따른 영업대책에 관해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내수시장의 고객관리로 국내 수요기업에 대해 HDPE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호남석유화학은 이미 HDPE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중·단기 계획을 세운 것으로 밝혔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언급하지 않으나 국내 및 해외 라인을 통해 HDPE 부족분을 보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화학 관계자들은 호남 No.3 HDPE 플랜트 폭발사고에 따른 영향이 상당한 것은 사실이나 최근 중국시장의 가격하락과 국내 경기침체 등으로 HDPE의 내수가격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 필름 그레이드는 안정적인 상승선을 보이고, 타포린과 사출 그레이드는 공급과잉에 따라 가격이 저평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필름 그레이드보다 가격 상승폭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내수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으나 국제시장, 특히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HDPE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내수시장은 동남아 시장에 영향을 미친 후 영향을 받고, 그것도 국제시장보다 안정적인 가격상승 내지 동결이 예상된다. 이는 것이다.

최근 HDPE 내수시장은 경기침체와 과잉생산으로 인해 가격상승 요인이 충분히 갖추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체되고 있는데, 필름 그레이드는 9월 생산기업들이 톤당 10만원 인상을 주도했지만 가격인상폭이 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2만-3만원 정도 인상에 그쳤다.

HDPE 10월 가격도 호남석유화학의 플랜트 폭발에 따른 여파가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석유화학업계의 일관된 의견이다. <김동민 조사연구원>

<Chemical Journal 2003/10/08>